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의열단
조선혁명선언
1923

kr.theanarchistlibrary.org

1923

차례

1.	3
2.	4
3.	5
4.	6
5.	8

1.

강도일본이우리의국호를없이하며, 우리의정권을빼앗으며, 우리생존적필요조건을다박탈하였다. 경제의생명인산림·천택·철도·광산·어장·내지소공업원료까지다빼앗아일체의생산기능을칼로베이며도끼로끊고, 토지세·가옥세·인구세·가축세·백일세·지방세·주초세·비료세·종자세·영업세·청결세·소득세 — 기타각종잡세가날로증가하여혈액은있는대로다빨아가고, 어지간한상업가들은일본의제조품을조선인에게매개하는중간인이되어차차자본집중의원칙하에서멸망할뿐이요, 대다수민중곧일반농민들은피땀을흘리어토지를갈아, 그일년내소득으로일신과처자의호구거리도남기지못하고, 우리를잡아먹으려는일본강도에게갓다바치어그살을찌워주는영원한우마가될뿐이요, 끝내우마의생활도못하게일본이민의수입이해마다높은비율로증가하여딸각밭이등쌀에우리민족은밭디딜땅이없어산으로물로, 서간도로북간도로, 시베리아의황야로몰리어가배고픈귀신이아니면정처없이떠돌아다니는귀신이될뿐이며,

강도일본이헌병정치·경찰정치를힘써행하여우리민족이한발자국의행동도입의로 못하고, 언론·출판·결사·집회의일체의자유가없고통의울분과원한이있어도병어리의가슴이나만질뿐이요, 행복과자유세계에는눈뜬소경이되고, 자녀가나면, “일을어국어라, 일문을국문이라”하는노예양성소 — 학교로보내고, 조선사람으로혹조선사를읽게된다하면“단군을속여소전오존의형제”라하며, “삼한시대한강이남을일본영지”라한일본놈들적은대로읽게되며, 신문이나잡지를본다하면강도정치를찬미하는반일본화한노예적문자뿐이며, 똑똑한자제가난다면환경의압박에서염세절망의타락자가되거나그렇지않으면‘음모사건’의명칭하에감옥에구류되어, 주리를틀고목에칼을썬우고발에쇠사슬채우기, 단근질·채찍질·전기질, 바늘로손톱밑과발톱밑을쑤시는, 수족을달아매는, 콧구멍에는물붓는, 생식기에심지를박는모든악형, 곧야만전제국의형률사전에도없는가진악형을다당하고죽거나, 요행히살아오문에 서나온대야중신불구의폐질자가될뿐이다. 그렇지않을지라도발명창작의본능은생활의곤란에서단절하며, 진취활발의기상은경우의압박에서소멸되어“찍도찍도”못하게각방면의속박·채찍질·구박·압제를받아환해삼천리가일개대감옥이되어, 우리민족은아주인류의자각을잃을뿐 아니라, 곧자동적본능까지잃어노예로부터기계가되어강도수중의사용품이되고말뿐이며,

강도일본이우리의생명을초개로보아, 을사이후 13 도의의병나던각지방에서일본군대의행한폭행도이루다적을수없거니와, 즉최근 3·1 운동이후수원·선천등의국내각지부터북간도·서간도·노령·연해주각처까지

지도처에거민을도륙한다, 촌락을불지른다, 재산을약탈한다, 부녀를욕보인다, 목을꿇는다, 산채로문는다, 불에사른다, 흑일신을두동가리세동가리로내어죽인다, 아동을악형한다, 부녀의생식기를파괴한다하여할수있는데까지참혹수단을써서공포와전율로우리민족을압박하여인간의‘산송장’을만들려하는도다.

이상의사실에의거하여우리는일본강도정치권이족통치가우리조선민족생존의적임을선언하는동시에, 우리는혁명수단으로우리생존의적인강도일본을살벌함이곧우리의정당한수단임을선언하노라.

2.

내정독립이나참정권이나자치를운동하는자가누구이나.

너희들이‘동양평화’한국독립보존’등을담보한맹약이먹도마르지가아니하여삼천리강도를집어먹던역사를잊었느냐?

‘조선인민생명·재산·자유보호’조선인민행복증진’등을거듭밝힌선언이땅에떨어지지아니하여 2 천만의생명이지옥에빠지던실제를못보느냐? 3.1 운동이후에강도일본이또우리의독립운동을완화시키려고송병준·민원식등한두매국노를시키어이따위광론을외침이니, 이에부화뇌동하는자가맹인이나아니면어찌간사한무리가아니냐?

설혹강도일본이과연관대한도량이있어개연히이러한요구를허락한다하자. 소위내정독립을찾고각종이권을찾지못하면조선민족은일반의배고픈귀신이될뿐아니냐? 참정권을획득한다하자. 자국의무산계급혈액까지착취하는자본주의강도국의식민지인민이되어몇개노예대의사의선출로어찌아사의화를면하겠는가? 자치를얻는다하자. 그어떤종류의자치임을묻지않고일본이그강도적침략주의의간판인‘제국’이란명칭이존재한이상에는, 그지배하에있는조선인민이어찌구구한자치의허된이름으로써민족적생존을유지하겠는가?

설혹강도일본이불보살이되어하루아침에총독부를철폐하고각종이권을다우리에게환부하며, 내정의교를다우리의자유에맡기고, 일본의군대와경찰을일시에철폐하며, 일본의이주민을일시에소환하고다만허된이름의중주권만가진다할지라도우리가만일과거의기억이전멸하지아니하였다하면, 일본을중주국으로봉대한다함이‘치욕’이란명사를아는인류로는못할지니라.

일본강도정치하에서문화운동을부르는자가누구이나?

문화는산업과문물의발달한총적을가리키는명사니, 경제약탈의제도하에서생존권이박탈된민족은그종족의보존도의문이거든, 하물며문

수의민중을해치다가말경에는또소수끼리서로해치어민중전체의행복이필경숫자상의공이되고말뿐이니, 민중전체의행복을증진하기위하여사회적불평등을파괴함이니라.

제 5 는노예적문화사상을파괴하자함이다. 왜? 전통적문화사상의종교·윤리·문학·미술·풍속·습관그어느무엇이강자가제조하여강자를옹호하던것이아니더냐? 강자의오락에이바지하던도구가아니더냐? 일반민중을노예화하게했던마취제가아니더냐? 소수계급은강자가되고다수민중은도리어약자가되어불의의압제를반항치못함은전혀노예적문화사상의속박을받은까닭이니, 만일민중적문화를제창하여그속박의철쇄를끊지아니하면, 일반민중은권리사상이박약하며자유향상의흥미가결핍하여노예의운명속에서윤회할뿐이다. 그러므로민중문화를제창하기위하여노예적문화사상을파괴함이니라.

다시말하자면‘고유적조선의’자유적조선민중의‘민중적경제의’민중적사회의‘민중적문화의’조선을건설하기위하여‘이족통치의’약탈제도의‘사회적불평등의’노예적문화사상의’현상을타파함이니라. 그런즉파괴적정신이곧건설적주장이라. 나아가면파괴의‘칼’이되고들어오면건설의‘깃발’이될지니, 파괴할기백은없고건설하고자하는어리석은생각만있다면 5 백년을경과하여도혁명의꿈도꾸어보지못할지니라. 이제파괴와건설이하나요둘이아닌줄알진대, 민중적파괴앞에는반드시민중적건설이있는줄알진대, 현재조선민중은오직민중적폭력으로신조선건설의장에인강도일본세력을파괴할것뿐인줄을알진대, 조선민중이한편이되고일본강도가한편이되어, 네가망하지아니하면내가망하게된‘외나무다리위’에선줄을알진대, 우리 2 천만민중은일치로폭력파괴의길로나아갈지니라.

민중은우리혁명의대본영이다.

폭력은우리혁명의유일무기이다.

우리는민중속에가서민중과손을잡고끊임없는폭력 — 암살·파괴·폭동으로써,

강도일본의통치를타도하고,

우리생활에불합리한일체제도를개조하여,

인류로써인류를압박치못하며,

사회로써사회를수탈하지못하는이상적조선을건설할지니라.

1923 년 1 월

의열단

아내지못하면물러서지않으리라”는구호를가지고계속전진하면목적을관철하고야말지니, 이는경찰의칼이나군대의총이나간헐한정치가의수단으로도막지못하리라.

혁명의기록은자연히처절하고씩씩한기록이되리라. 그러나물러서면그후면에는어두운합정요, 나아가면그전면에는광명한합기이니, 우리조선민족은그처절하고씩씩한기록을그리면서나아가갈뿐이나라.

이제폭력 — 암살·파괴·폭동 — 의목적물을열거하건대,

1. 조선총독및각관공리
2. 일본천황및각관공리
3. 정탐꾼·매국적
4. 적의일체시설물

이외에각지방의신사나부호가비록현저히혁명운동을방해한죄가없을지라도만일언어혹행동으로우리의운동을지연시키고중상하는자는우리의폭력으로써마주할지나라. 일본인이주민은일본강도정치기기체가되어조선민족의생존을위협하는선봉이되어있는즉또한우리의폭력으로쫓아낼지나라.

5.

혁명의길은파괴부터개척할지나라. 그러나파괴만하려고파괴하는것이아니라건설하려고파괴하는것이니, 만일건설할줄을모르면파괴할줄도모를지나라, 파괴할줄을모르면건설할줄도모를지나라. 건설과파괴가다만형식상에서보아구별될뿐이요, 정신상에서는파괴가곧건설이니 이를테면우리가일본세력을파괴하려는것이제 1 은, 이족통치를파괴하자함이다. 왜? ‘조선’이란그위에‘일본’이란이민족그것이전제하여있으니, 이족전제의밑에있는조선은고유적조선이아니니, 고유적조선을발견하기위하여이족통치를파괴함이니라.

제 2 는특권계급을파괴하자함이다. 왜? ‘조선민중’이란그위에총독이니무엇이니하는강도단의특권계급이압박하여있으니, 특권계급의압박밑에있는조선민중은자유적조선민중이아니니, 자유적조선민중을발견하기위하여특권계급을타파함이니라.

제 3 은경제약탈제도를파괴하자함이다. 왜? 약탈제도밑에있는경제는민중자기가생활하기위하여조직한경제가아니고민중을잡아먹으려는강도의살을찌우기위하여조직한경제니, 민중생활을발전하기위하여경제약탈제도를파괴함이니라.

제 4 는사회적불평등을파괴하자함이다. 왜? 약자위에강자가있고천한자위에귀한자가있어모든불평등을가진사회는서로약탈, 서로박탈, 서로질투·원수시하는사회가되어, 처음에는소수의행복을위하여다

화발전의가능이있으랴? 쇠망한인도족·유태족도문화가있다하지만, 하나는금전의힘으로그조상의종교적유업을계속함이며, 하나는그토지의넓음과인구의많음으로상고에자유롭게발달한문명의남은혜택을지킴이니, 어디모기와등에같이, 승냥이와이리같이사람의피를빨다가골수까지깨무는강도일본의입에물린조선같은데서문화를발전혹지켰던전례가있더냐? 검열·압수, 모든압박중에몇몇신문·잡지를가지고‘문화운동’의목탁으로스스로떠들어대며, 강도의비위에거스르지아니할만한언론이나주창하여이것을문화발전의과정으로본다하면, 그문화발전이도리어조선의불행인가하노라.

이상의이유에의거하여우리는우리의생존의적인강도일본과타협하려는자나강도정치하에서기생하려는주의를가진자나다우리의적임을선언하노라.

3.

강도일본의구축을주장하는가운데또다음과같은논자들이있으니, 제 1 은외교론이니, 이조 5 백년문약정치가외교로써호국의중은계책으로삼아더욱그말세에대단히심하여갑신이라유신당·수구당의성쇠가거외의원의도움의유무에서판결되며, 위정자의정책은오직갑국을끌어당겨를국을제압함에불과하였고, 그민고의지하는습성이일반정치사회에전연되어즉갑오·갑신양전역에일본이수십만명의생명과수억만의재산을희생하여청·노양국을물리고, 조선에대하여강도적침략주의를관철하려하는데우리조선의“조국을사랑한다. 민족을건지려한다”하는이들은일검일탄으로어리석고용렬하며탐욕스런관리나국적에게던지지 못하고, 탄원서나열국공관에던지며, 청원서나일본정부에보내어국세의외롭고약함을애소하여국가존망·민중생활의대문제를외국인심지어적국인의처분으로결정하기만기다리었도다. 그래서‘을사조약’경술합병’— 곧‘조선’이란이름이생긴뒤몇천년만에처음당하던치욕에대한조선민족의분노적표시가겨우하얼빈의총, 종로의칼, 산림유생의의병이되고말았도다.

아! 과거수십년역사야말로용기있는자로보면침을뺀고욕할역사가될뿐이며, 어진자로보면상심할역사가될뿐이다. 그리고도국망이후해외로나가는모모지사들의사상이, 무엇보다도먼저외교가그제 1 장제 1 조가되며, 국내인민의독립운동을선동하는방법도“미래의일미전쟁·일로전쟁등기회”가거의천편일률의문장이었고, 최근 3:1 운동의일반인사의‘평화회의’“국제연맹”에대한과신의선전이도리어 2 천만민중의용기있게힘써앞으로나아가는의기를없애는매개가될뿐이었던다.

제 2 는 준비론이니, 을사조약의당시에열국공관에빗발듯하던중이쪽지로넘어가는국권을붙잡지못하며, 정미년의헤이그밀사도독립회복의복음을안고오지못하며, 이에차차외교에대하여의문이되고전쟁이아니면안되겠다는판단이생기었다. 그러나군인도없고무기도없이무엇으로써전쟁하겠느냐? 산림유생들은춘추대의성패를생각지않고의병을모집하여아관대의로지휘의대장이되며, 사냥포수의총든무리를몰아가지고조일전쟁의전투선에나섰지만신문쪽이나본이들 — 곧시세를잡작한다는이들은그리할용기가아니난다. 이에“금일금시로곧일본과전쟁한다는것은망발이다. 총도장만하고, 돈도장만하고, 대포도장만하고, 장관이나사졸감까지라도다장만한뒤에야일본과전쟁한다”함이니, 이것이이른바준비론곧독립전쟁을준비하자함이다. 외세의침입이더할수록우리의부족한것이자꾸감각되어, 그준비론의범위가전쟁이외까지확장되어교육도진흥해야겠다, 상공업도발전해야겠다, 기타무엇무엇일체가모두준비론의부분이되었다. 경술이후각지사들이혹서·북간도의삼림을더듬으며, 흑시베리아의찬바람에배부르며, 흑남·북경으로돌아다니며, 흑미주나하와이로돌아가며, 흑경향에출몰하여십여년내외각지에서목이터질만치준비! 준비! 를불렀지만, 그소득이몇개불완전한학교와실력이없는단체뿐이었던다. 그러나그들의성의의부족이아니라실은그주장의착오이다. 강도일본이정치·경제양방면으로구박을주어경제가날로곤란하고생산기관이전부박탈되어입고먹을방책도단절되는때에, 무엇으로어떻게실업을발전하며, 교육을확장하며, 더구나어디서얼마나군인을양성하며, 양성한들일본전투력의백분의일의비교라도되게할수있느냐? 실로한바탕의잡꼬대가될뿐이로다.

이상의이유에의하여우리는‘외교’준비’등의미몽을버리고민중직접혁명의수단을취함을선언하노라.

4.

조선민족의생존을유지하자면, 강도일본을쫓아내어야할것이며, 강도일본을쫓아내려면오직혁명으로써할뿐이니, 혁명이아니고는강도일본을쫓아낼방법이없는바이다.

그러나우리가혁명에종사하려면어느방면부터착수하겠는가?

구시대의혁명으로말하면, 인민은국가의노예가되고그위에인민을지배하는상진곧특수세력이있어그소위혁명이란것은특수세력의명칭을변경함에불과하였다. 다시말하면곧‘을’의특수세력으로‘갑’의특수세력을변경함에불과하였다. 그러므로인민은혁명에대하여다만갑·을양세력곧신·구양상진의누가더어질며, 누가더포악하며, 누가더선하며, 누가더악한가를보아그향배를정할뿐이요, 직접의관계가없었다. 그리하

여“임금의목을베어백성을위로한다”가혁명의유일한취지가되고“한도시락의밥과한종지의장으로써임금의군대를맞아들인다”가혁명의사유일미담이되었거니와, 금일혁명으로말하면민중이곧민중자기를위하여하는혁명인고로‘민중혁명’이라‘직접혁명’이라칭함이며, 민중직접의혁명인고로그비등·팽창의열도가숫자상강약비교의관념을타파하며, 그결과성의패가매양전쟁항상의정해진판단에서이탈하여돈없고군대없는민중으로백만의군대와억만의부력을가진제왕도타도하며외국의도적들도쫓아내니, 그러므로우리혁명의제일보는민중각오의요구니라.

민중이어떻게각오하는가?

민중은신인이나성인이나어떤영웅호걸이있어‘민중을각오’하도록지도하는데서각오하는것도아니요, “민중아, 각오하라”“민중이여, 각오하라”그런열렬한부르짖음의소리에서각오하는것도아니다.

오직민중이민중을위하여일체불평·부자연·불합리한민중항상의장애부터먼저타파함이곧‘민중을각오케’하는유일한방법이니, 다시말하자면곧먼저깨달은민중이민중의전체를위하여혁명적선구가됨이민중각오의첫째길이다.

일반민중이배고픔, 추위, 피곤, 고통, 처의울부짖음, 어린애의울음, 납세의독촉, 사채의재촉, 행동의부자유, 모든압박에줄리어살려나살수없고죽으려하여도죽을바를모르는판에, 만일그압박의주인되는강도정치시설자인강도들때려누이고, 강도의일체시설을파괴하고, 복음이사해에전하여못민중이동정의눈물을뿌리어, 이에사람마다그‘아사’이외에오히려혁명이란일로가남아있음을깨달아, 용기있는자는그의분애뜻이기에, 약자는그고통에못견디어, 모두가길로모여들어계속적으로진행하며보편적으로전염하여거국일치의대혁명이되면, 간찰잔포한강도일본이필경쫓겨나가는날이리라. 그러므로우리의민중을깨우쳐강도의통치를타도하고우리민족의신생명을개척하자면양병 10 만이폭탄을한번던진것만못하며억천장신문잡지가일회폭동만못할지니라.

민중의폭력적혁명이발생치아니하면그만이거니와, 이미발생한이상에는마치낭떠러지에서굴리는돌과같이서목적지에도달하지아니하면정지하지않는것이다. 우리의경험으로말하면갑신정변은특수세력이특수세력과싸우던궁궐안한때의활극이될뿐이며, 경술전후의의병들은충군애국의대의로분격하여일어난독서계급의사상이며, 안중근·이재명등열사의폭력적행동이열렬하였지만그후면에민중적역량의기초가없었으며, 3·1 운동의만세소리에민중적일치의의기가언뜻보였지만또한폭력적중심을가지지못하였도다. ‘민중·폭력’양자의그하나나만비록천지를뒤흔드는소리를내며장렬한거동이라도또한번개같이수그러지는도다.

조선안에강도일본이제조한혁명원인이산같이쌓였다. 언제든지민중의폭력적혁명이개시되어“독립을못하면살지않으리라”, “일본을쫓